

# 창극으로 만나는 '5·18 슬픈 가족사'



왕기석 명창 정선심 단원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망월할매역의 정선심 단원이 아들 그리워하는 장면을 선보이고 있다.

시립창극단 '망월, 달빛의 노래' 다음달 11~12일 빛고을시민문화관 김규형 총감독... 동·서양 악기 조화

그동안 5·18은 연극과 뮤지컬, 영화 등 다채로운 분야에서 다뤄져왔다. 작품 역시 시민군들을 중심으로 두는 작품들이 대부분이었다. 억압된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흘린 시민군들의 땀과 피에 대한 조명은 그간 다채롭게 선보여져왔다. 그렇다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식을, 사랑하는 남편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돼버린 가족의 마음은 어떨까. 42년간 그리움에 젖어 온 평생을 살아온 남은 가족들을 음악과 춤으로써 표현하는, 5·18을 다루는 새로운 시각과 분야의 무대가 마련됐다.

제 57회 광주시립창극단 정기공연 '망월, 달빛의 노래'가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광주빛고을 시민문화관에서 열린다. (11일 오후 7시 30분, 12일 오후 3시)

광주시립창극단은 지난 21일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제작발표회를 통해 무대를 선보였다. 특히 이번 작품은 시립창극단에서 처음으로 다루는 5·18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제목의 '망월'은 '달을 바라보다'라는 뜻으로 기다림과 그리움, 꿈과 희망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곧 남겨진 희생자 가족들이 느끼는 그리움과 기다림의 감정, 꿈과 희망에 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무대는 망월할매를 중심으로 이들의 가족사를

서글픈 음악과 애절함을 온 몸으로 표현하는 무용 등 창극형식으로 이뤄진다.

망월할매의 하나뿐인 아들 정영일은 전남도청 시위현장에 나섰다가 공수부대의 총격으로 목숨을 잃는다. 시간이 흘러 망월할매는 성한 곳 없는 몸으로 비척비척 아들이 안치된 망월동산을 찾는다. 이때 음악단의 서글픈 해금과 아쟁연주와 함께 영령들은 각자의 가족을 떠올리며 상기되는 그리움을 온 몸으로 부르짖는다.

달빛 아래 영령들이 각자의 묘비에 꽃힌 흰 천 깃발을 들고 아리랑을 부르며 흥겹게 노는 무용으로 시작하는 무대는 밝은 몸짓과 흥겨운 목소리 속 멍한 한이 절절하게 느껴진다. 망월동산을 오르는 망월할매의 모습을 보고 마치 엄마를 만난 듯 반기며 달려오는 영령들의 사투진 동작과 가야금 소리가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원통함을 더한다.

이번 무대 음악에는 가야금, 아쟁, 거문고, 피리, 대금 등 국악기와 더불어 일렉기타와 베이스, 건반 등 서양악기도 합세해 서글픔과 웅장함을 함께 만나볼 수 있다.

무대는 김규형 광주시립창극단 예술감독이 총감독을 맡았다. 대본과 연출에는 국립민속국악원 예술감독을 역임하고 백상예술상 특별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마당극페 우금지 예술감독을 맡고 있

는 류기형 감독이 참여했다. 김백찬(lamMusic 대표) 작곡가가 작곡과 음악감독을, 국립민속국악원장 왕기석 명창이 작창을 맡아 무대를 꾸렸다.

망월할매역과 손녀딸 강운솔 역은 첫째날 각각 정선심과 이미소, 둘째날 허승희와 이은비가 할머니와 딸을 노래한다. 딸 정다리 역은 이정주가, 아들 역은 정승기가 맡는다.

망월할매역을 노래한 정선심은 "5·18이라는 광주의 커다란 역사를 다루는 것이 어렵고 조심스러웠다. 어머니께서 차매를 알고 계셔서 뵈고 올 때마다 눈물이 난다. 누군가의 엄마가 그랬듯, 나의 엄마를 떠올리며 엄마의 심정에서 연기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류기형 감독은 "창극으로 1980년으로부터 42년의 시간이 지난 오늘날 작품을 다룬다고 했을 때 변하지 않고 새롭게 각인될 수 있는 소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작품 속에서 관객들이 또 다른 5·18에 대한 시선을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설명했다.

공연 예매는 광주문화예술회관 티켓링크에서 가능하다. S석 2만원, A석 1만원, 문의 062-526-0363.

/글·사진=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 '시산맥기후환경문학상'에 조영심 시인

'별빛 실은 그 잔바람은 어떻게 오실까' 외 4편 수상작 선정

제1회 시산맥기후환경문학상에 김제 출신 조영심 시인(사진)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상작은 '별빛 실은 그 잔바람은 어떻게 오실까' 외 4편이며 상금은 500만 원.

시 전문지 계간 '시산맥'이 주관하는 시산맥기후환경문학상은 지구의 환경을 살리고 지키는 일은 선택이 아닌 후손들을 위한 의무이며 문인으로서 기후와 환경으로 인한 현 인류의 고통을 위기의 식으로 인식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정됐다.

심사위원들은 수상작에 대해 "시인의 개성이 '기후환경'이라는 문제에 자연스럽게 녹아있어 '기후환경'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작위적으로 만든 시들과 확연히 구분되었다"며 "자신이 다룰 수 있을 만한 이야기를 자신의 목소리로 가만 가만 다루고 있어 시의 진정성 면에서도 안심되었다"고 평했다.

조영심 시인은 전주대 영문과를 졸업했으며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여수 정보과학과 영어 교사로 재직 중이며 2007년 계간 '애지' 신인상으로 등단했다. 시집으로 '담을 허다', '소리의 정월', '그리움의 크기' 등을 펴냈으며 제18회 애지문학상을 수상했다.



조영심 시인 김재환 시인

아울러 우수상(상금 200만원)에는 김재환 시인의 '꽃비' 외 4편이 선정됐다. 심사위원들은 "시는 거칠고 투박한 면이 없지 않으나 그것이 그대로 이 시인의 개성으로 느껴졌다. 생태 위기 및 기후 환경에 대한 인식과 실천도 뛰어나다고 판단됐다"고 평했다.

전북 고창 출신인 김재환 시인은 제7회 성호 신인문학상, 제14회 오산 신인문학상을 수상했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11월 26일 오후 4시 서울 강호동에서 진행되는 전국 시산맥 행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예술로 친일 청산하기 딱 좋은 날

'10·26 탕탕' 전 30일까지 BHC갤러리... 회화·조각 등 17점

26일 공연 등 행사

'친일 청산하기 딱 좋은 날-10·26 탕탕'전이 오는 30일까지 광주 예술의 거리 BHC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는 '평화의 소녀상' 제작자인 김서경·김운성 작가를 비롯해 김화순·노주일·류기정·박성우·손향우·이사범·이상호·전정호·전혜옥·조현 등 15명의 작가가 참여해 회화, 조각 등 17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는 지난해 처음 열리기 시작했다. 오는 26일은 '10·26'이 발생한 날이자, 이토 히로부미가 사망한 날이다. 또 청산리 전투와 명량해전에서 대승을 거둔 날이기도 하다. 지역 미술인들은 역사적 의미가 있는 날을 기념해 우리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전시를 기획하고 함께 모여 아이디어와 주제를 정하고 토론 모임도 열었다.

올해는 전시와 함께 26일 오후 7시 참여 작가와



시민들이 함께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독립운동가나 친일파 등 역사적 인물로 분장하고 함께 즐기는 행사다.

김국주의 '무서운 시간', '열음'을 위한 반도네온 연주가 펼쳐지며 김호준의 '안중근 동포에게 고함' 퍼포먼스, 정찬경의 '육중가' 노래, 김호준·김은숙의 '박정희 연극' 등이 이어진다. 또 역사적 인물로 분장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최고의 분장상' 시상식도 갖는다. /김미은 기자 mekim@

# 'ACC 미디어월' 철거만이 능사인가

광주문화도시협의회 집담회... 내일 5·18민주화운동 기록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미디어월은 복원 사업 계획에 따르면 철거가 원칙이지만, 지금까지 ACC에서 제작한 콘텐츠를 시민들과 소통하는 '장' 역할을 해왔다. 현재 미디어월을 놓고 꼭 철거를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지역의 여론도 상존하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가 미디어월을 주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집담회를 진행한다.

광주문화도시협의회(상임대표 박병주)는 오는

26일 오후 3시, 5·18민주화운동 기록관 7층 세미나실에서 '옛 전남도청 원형복원! 미디어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시민사회 집담회를 개최한다.

광주문도협이 주최하고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집담회는 '문화전당 미디어월'을 주제로 첫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재 옛 전남도청 원형복원 사업(이하 복원사업)의 변수였던 사업비 증액을 위한 타당성

재조사가 완료됐고 2023년 예산이 반영돼 본격적인 사업의 추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이기훈 상임이사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집담회는 흥성철 옛 전남도청 원형복원 범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이 '복원사업 현황 및 향후 계획'(로드맵) '복원사업 의결기구인 옛 전남도청 원형복원 협의회에서 논하고 있는 상황'을 바탕으로 제언 중심의 주제 발표를 한다.

이어서 김유빈 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 이사, 신용주 조선대학교 교수, 박홍근 포유건축사 대표, 김병택 광주주민직미술협회 회장, 이기봉 5·18기념재단 사무처장, 추혜성 옛 전남도청 원형복원 지킴이, 엄수경 광주전남문화유산연대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정유정 작가 소설 '종의 기원' 뮤지컬로

12월 18일~내년 3월 5일 서울 공연

정유정 작가의 베스트셀러 소설 '종의 기원'이 뮤지컬로 만들어진다.

제작사 뷰티플레이는 뮤지컬 '종의 기원'을 오는 12월 18일부터 내년 3월 5일까지 서울 대학로 드림아트센터 1관에서 공연한다고 24일 밝혔다. 사 고로 아버지와 형을 잃고 정신과 약을 복용하던 사

이코패스의 주인공 한유진이 어느 날 살해된 어머니의 시신을 발견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다.

정유정 작가의 다른 베스트셀러 소설인 '7년의 밤'과 '28'을 잇는 사이코패스 3부작의 완결판으로 불리며 사이코패스의 차가운 내면을 치밀하게 파고든다. 뮤지컬 '종의 기원'은 극작가 김윤영이 각색을 맡고 이기쁨이 연출을, 작곡가 이성준이 작곡 및 음악감독을 맡았다. /연합뉴스

**손해보험협회**

# 돈돈한 지킴이

실손의료보험! 국민건강!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